

## 우리가 꿈꾸는 사회

이 규 용\*

“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계를 꾸려갈 만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병들어도 파산하지 않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와 테러 피해를 입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 내용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굳이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건이나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한 모습일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009년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4만 명 감소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72천 명 감소하여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에 이어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수 비중으로 표현되는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상황을 내용면에서 들여다 보면 더 나쁘다.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여성 자영자와 청년층이 주된 타격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영자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대빈곤율의 추세적 증가세나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도 더 두드러졌다. 실업과 빈곤 위험이 높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충격이 주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2009년에 고용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직접적이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leeky@kli.re.kr).

고 광범위하게 추진해온 것에 기인한다. 정부는 일반회계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유지·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였다. 특히 직접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나누기,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하였고 실직자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였다. 경기침체에 민간부문의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한시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대책은 소득지원과 일자리 연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고용위기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회복에 기대어 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만으로는 더 이상 양과 질의 양면을 포괄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문제의 본질을 성장이나 노동시장 수급 원활화같은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의존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정책 등 고용영향을 고려하는 등 정책의 기조가 바뀔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정부 정책대응도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취업·교육훈련 지원, 고용인센티브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안만으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이들 정책들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자.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물질 토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삶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는 것을 경쟁과 효율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공존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그리고 여러 사회적 공동체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의제가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장 해답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KL**